

# 새출발기금 약정률 높지만... 30조 목표 까마득

(81%)

채무조정 신청 인원 5만4052명  
조정 채무규모 2조4744억 그쳐  
내년까지 30조 목표 달성 힘들듯  
당국, 지원 활성화 위해 대상 확대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0조원의 채무조정을 마친다는 추진 목표는 달성성이 힘들 전망이다.

14일 캠프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4052명이다. 채무조정을 마친 신청자는 3만3572명으로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은 약 63%다. 조정 채무규모는 2조4744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인수를 통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남대문시장에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뉴시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한다.

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하는데 3개월 인콰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출발기금의 실질 약정완수율은 약 81%(2023년 12월 신청자 4만3668명 대비 약정완수율)에 달한다. 평균 채무조정 금액을 고려하면 기대 채무조정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81%에 달하는 높은 실질 약정완수율에도 채무조정액은 새출발기금의 출범 당시 목표인 30조원의 약 11%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의 흥행 저조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같은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 발생 중단에 따라 새출발기금 수요는 크게 줄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023년 9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연체율 증가는 없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부채가 연착륙 단계로 접어들어, 새출발기금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4339명으로, 지난 1월 신청자(3312명) 대비 약 31% 늘었다. 하지만 기간 확대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만큼 수요는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을 제3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제3금융권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 해당 방안은 불발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며 "차주 스스로도 연체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카드 News

### 신한카드 녹색금융 313억 등 ESG 경영성과 공유

신한카드가 ESG 경영 성과를 공유했다.

#### ◆상생금융·사회공헌 박차

신한카드는 '2023년 ESG 하이라이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마이샵 파트너의 가입 고객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 마이샵과 트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주요 상생금융 채널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캐시백·경품추첨 등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했던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 대상 대출 지원은 2조7000억원이다.

친환경 이동수단 대여 및 그린 리모델링 대출 서비스 등을 통해 녹색금융 313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소재 카드 플레이트 125만매 발급 및 실물카드없는 디지털 카드로의 전환도 강화했다.

### NH협카드 상품권·전자제품 증정 고객 감사이벤트 진행

NH협카드가 상품권, 전자제품 등 경품지급 행사를 마련했다.

#### ◆추첨통해 로보락, 퓨리케어 선물

NH협카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학기 문화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총 1004명에게 컬처랜드 모바일 상품권(2만원)을 제공한다. 대상은 개인카드로 3월 한 달간 국내 가맹점에서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이다. 이어 '교육비 자동납부 이벤트'를 준비했다. 카드자동납부 서비스 신청 및 이벤트 응모 시 GS25 모바일쿠폰(5000원)을 제공한다. 내달 말일까지 1회 이상 교육비 자동납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

전자제품도 선물한다. NH페이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로보락 로봇청소기 ▲LG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다이슨 청소기 등 경품을 지급한다.

### 현대카드 셀프쿠킹 첫 운영 등 3~4월 문화행사 공개

현대카드가 3~4월 문화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 ◆셀프쿠킹, 다큐멘터리 선봬

현대카드는 봄을 맞아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셀프쿠킹' 프로그램이 2024년 첫선을 보인다. '레드렌탈 치킨 수프'를 배울 수 있다. 내달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한다.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에드 루샤(Ed Ruscha)의 다큐멘터리 '4 디케이즈'를 관람할 수 있다. 언더스테이지에서는 공연을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는 '김수로·위선자 탁 선생'이 열린다. 바이날엔플라ستيك에서는 '픽처 디스크(Picture Disc)'를 만나볼 수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장기요양 수요 급증... 신한라이프, 요양사업 본격화

시니어 사업 전담 '신한라이프케어'  
하남에 도시형 요양시설 건립 추진

신한라이프가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본격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양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 1월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헬스케어 자회사였던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오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 매입도 마무리했다. 경기도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부지는 매입한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한라이프가 요양사업 진출에 나선 배경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꼽힌다.

특히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 2월 발표한 '주요국 장기요양시장 현황'에 따르면 특히 '가장 노년층(85세 이상)'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향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주요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다. 2000~2019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비중은 약 60% 증가했다.

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공공 부문

의 장기요양 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신한라이프케어의 요양 사업 연착륙에 나선다. 신한라이프케어를 바탕으로 신한금융 그룹사 간 협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 삼성물산, 타워피엠씨와 기존 주거단지에 '홈닉' 서비스 도입

삼성물산이 주거단지 관리운영 전문기업과 손잡고 홈플랫폼 브랜드인 '홈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4일 타워피엠씨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아에서 기존 주거단지에 홈닉 도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더불어 문화생활, 건강 관리 등 주거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전용앱을 출시하고,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해 입주민



방문객들이 '래미안 더 넥스트' 행사 현장에서 홈닉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워피엠씨는 지난 2002년 창립해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용산 한남더힐과 지

난해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 등 지역의 랜드마크 주거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종합주거관리 서비스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주택사업

본부장 김명석 부사장과 타워피엠씨 강민수 부회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브랜드의 기존 공동주택에도 홈닉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사는 신규 단지 외 기존의 공동주택에도 홈닉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혁신적인 라이프 솔루션과 타워피엠씨의 단지 관리운영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등 시너지를 더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서울과 부산 지역 등의 주거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주거 품격과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 협업을 진행해 갈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